

다양성과 함께 춤을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단순함을 즐기는 건 이제 포기해야겠다. 글 좀 쓰려고 하면 스크린에 문자가 번쩍 뜨면서 눈길을 흠뻑 간다. 누군가와 모처럼 얘기 좀 나누려 하면 스마트폰이 아우성을 치며 테이블을 흔들어 놓는다.

어디 그 뿐인가? 그 동안 묵혀둔 일을 마무리하려 하면 급하다고 새로운 일이 떨어진다. 이제 좀 익숙하고 편하다 싶으면 어느새 낯선 기술이 부상한다. 어디 한 곳에 정신을 담기가 좀처럼 어렵다.

단순함은 순진하고 단조롭다는 뜻을 넘어 낙관주의까지 연상시킨다. 버트란트 러셀이 그리스 철학을 위대하다고 한 대목이 거기에 있다. “그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일을 실제보다 더 쉽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낙관주의가 없었던들 그들은 감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러셀의 서양철학사)이다.

수학과 연역추리 기술을 발견한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단순하고 우직한 사유를 즐겼는데, 우리에게 그런 단순함을 즐길 기회조차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스 시대와 같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의 현재는 기억일 뿐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현재는 바로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다. 참고로 미래에 일어날 일의 현재는 기대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말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눈 앞에 펼쳐지는 현재의 일에 빠져들 수밖에! 과거를 기억하는 게 그림고, 미래를 기대하는 게 즐겁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현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단순함을 향유하는 삶은 영원히 사라졌다. 왜냐하면 전화, 라디오, 비행기, 자동차가 산업화 문명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평생교육자 에두아르트 린드만이 한 말이다. 현재로 따지면 모바일(스마트폰과 웨어러

블기기), 전기자동차, 인공지능과 온갖 종류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단순함을 깨트리는, 디지털 문명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모른다.

린드만은 이렇게 혜안을 준다. “우리는 그 주변이 아닌 그 것과 함께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린드만의 성인교육의 의미)”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순응만 한다면 인간의 인격과 경험의 가치는 점점 더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단순함을 즐기는 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문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할지를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순진하고 단조로운 것보다 다양성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재미있는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것이 변화와 성장에 충분한 자극이 된다는 것을, 오늘부터 다양성과 함께 춤을 추어야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지구 2500바퀴 돈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 은퇴

항공여행 대중화 이끈 B747 25년 9개월간 약 10만시간 운항 대만-인천 마지막 비행 후 은퇴



아시아나항공 B747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마지막 운항 기념 물대포 환영(Water Salute)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 여객기(HL 7428)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은퇴한다. ‘하늘 위 여왕’, ‘점보’ 등으로 불리며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보잉 747-400 여객기의 국내 마지막 비행이다.

2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5년 9개월 동안 수많은 승객들의 추억을 싣고 날았던 이 항공기는 25일 오후 1시 20분, 대만 타이베이공항을 이륙해 오후 4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항공기의 마지막을 기념해 타이베이 공항과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도착에 맞춰 소방차량 2대가 물대포를 항공기 위로 쏘아올리는 이벤트로 성대하게 맞이했다.

이 항공기는 지난 1999년 6월 20일 도입된 기종으로, 같은 해 6월 22일 김포-뉴욕

(JFK) 노선을 첫 운항으로 지금까지 비행 시간 9만6986시간에 1만8139차례를 운항했다. 비행거리는 약 8800만 킬로미터에 달해 지구를 약 2500바퀴 돈 셈이다.

또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마지막 보잉 747-400여객기이며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코드원 운항 임무를 가장 많이 수행한 항공기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클래스 34석과 이코노미 클래스 364석으로 구성된 장거리용 대형 여객

기이며, 오늘 운항편은 마지막 비행을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항공기 애호가들로 일찌감치 만석 예약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점보 항공기의 마지막 비행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A350, A321NEO 등 최신 기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고객 편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6일 (음 2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음식을 빠르게 먹는 것은 건강에도 이롭지 못하다. **48년생** 기회는 스스로 잡는 것이니 노력을. **60년생** 아직은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72년생** 성공이 앞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84년생** 비몽사몽같이 어지러운 날.
- 37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 **49년생** 날씨도 좋으니 피서 겸 여행 떠나보자. **6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편안하다. **73년생**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일을 풀리게 한다. **85년생** 계획은 오늘 하여 풀어가지라.
- 3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떠나는 법. **5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매사에 주의. **6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4년생** 조인도 사람 봐 가며 해야만. **86년생** 이상의 일시적인 눈가림에 신중히.
- 39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51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임을 실천하도록 하자. **63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이 많이 남는 날이다. **75년생**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87년생** 박장대소할 일이 발생.
- 40년생**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52년생** 변화무쌍한 날이니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64년생** 무더위가 갔다고 그늘의 덕을 잊으면 안 된다. **76년생** 워터사랑이 합심하여 전략을 짜서 마무리. **88년생** 뱀띠를 만나면 다들 일이.
- 41년생** 계속된 삶이니 지치지 말고 전진. **53년생** 경치 좋은 곳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65년생**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면 보답을 받는다. **77년생** 갈팡질팡 중심 잡기가 힘든 날. **89년생** 아침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맞는 격.
- 42년생** 불만은 가족에게도 나타낼 뉘는 소용. **54년생** 주변에 꼬임이 많으니 매사에 중심을 갖고 조심. **66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 **78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 **90년생** 받은 게 많으니 인정도 베풀자.
- 43년생** 농친 고기가 크게 보이는 법. **55년생** 파란색 동남쪽이 오늘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 **67년생**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순리. **79년생**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꼬이게 되니 사심을 버려라. **91년생** 군자는 상대의 약점을 노리지 않는다.
- 44년생** 작은 행운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56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출전이 필요. **68년생** 분노를 품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때. **80년생** 웃으면 화가 몰라날 것. **92년생** 여우가 죽을 때에 제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
- 45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계단 조심하고 바쁜 장소는 피해서 갈 것. **5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날. **6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81년생** 부모님이 그림다. **93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 46년생** 불어오는 바람이 근심을 가져간다. **58년생** 어여쁜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 **70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좀 더 노력을. **82년생** 책을 손에 놓을 사이 없이 열중. **94년생** 안 맞는 사람도 때로는 잡아야 할 때가 있는데.
- 47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 **5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니 의견통일이 우선. **71년생** 상대의 실수를 이해. **83년생** 가끔은 보이는 포장도 중요하니 외모에 신경. **95년생** 겸손은 선을 쌓아가고 역운도 막아준다.



김상회의四季

청약통장

팔자에서 나의 후원 성은 어머니요 집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넘는다. 부동산이 불황기로 들어서고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10억 원이라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정말 꿈으로 끝날까 걱정하는 층이 많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라면 좌절하기에 앞서 청약통장이라는 묘수를 잘 활용하면 좋다. 필자보다 더 잘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납입 횟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청약 가점에서 유리하다. 국민주택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이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게 이득이다. 당장 집을 살 상황이 아니라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뜻밖의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대체로 주변 시세보다 낮지 않은가.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시세보다 몇억 원이 저렴한 곳도 있다. 그런데 이런 기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할 때 누군가는 청약통장을 만들면서 한 발자국씩 미래로 간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집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방법이 생긴다. 여타지출을 줄이고 현실 불평하지 말고 꿈을 이뤄나가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합형스도쿠110 110문제

2		4	8		3
	7		5	6	2
		5		7	3
6	1	4			7
	5				9
9				4	1
		6	5		
	4		1	9	6
5		6		1	4

9	7	8	6	2	3
6	1	4		7	
2					4
4	3			8	
		8			4
			5		3
3					2
	7			4	5
5	6	3	2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3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